



와인, 그 투자 가치를 말하다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와인 애호가들은 와인의 '맛'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와인의 '가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5월, 서울옥션에서 최초로 전문적인 와인 경매가 열린 것은 그 관심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 그렇다면 어떤 와인들이 투자 등급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에디터 유소라 사진 최지영 도움말 조정웅(아트옥션 대표) 조수경(서울옥션 마케팅부)제품 협찬 나라식품(2015-0525) 다유와인(2632-7028) 두산주류BG(3015-8196)



영국인들은 오랜 숙성을 요하는 보르도 와인을 병입하자마자 구입해 저장고에 쌓아두고 자녀가 장성하면 개봉해 마시거나 경매를 통해 내다팔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와인을 자식에게 상속했다. 이처럼 와인을 오랫동안 애용해오던 유럽 지방에서는 와인도 하나의 재산 가치로 인식한 지 오래. 이미 18세기 중엽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와인을 취급했을 정도니 말이다.

와인만을 내놓는 독립적인 와인 경매가 생긴 것은 1960년대 중반.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와인 경매가 열렸지만, 와인 경매 전문 회사가 세워져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와인을 '투자 가치'로 오랫동안 인식해온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최근에서야 재테크의 수단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아트옥션 주축로 비정기적으로 이벤트처럼 와인 경매가 열린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와인 경매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옥션 주축로 열렸던 와인 경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희귀 와인이나 빈티지가 좋은 와인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 아직은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없어 본격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 관심만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와인이 투자 등급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상품은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 고가인데, 와인은 기본적으로 모두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해 수확된 포도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와인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이 의미 없다. 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성 능력. 일반적으로 와인의 수명 기간은 2~3년인데 이 기간 내에 개봉해야 와인의 맛과 향이 제대로 우러나온다. 그러나 숙성 능력이 높은 보르도 특급 와인 같은 경우는 병입된 후 20~30년 정도가 지나야 완전히 숙성된다. 그 시기가 지난 후에도 20년 정도는 풍부한 맛을 내 그 수명이 40~50년까지 가기도 한다. 자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와인 투자의 블루칩으로 불리

는 보르도 레드와인은 숙성 능력이 좋아 와인 투자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큰 병에 담긴 와인의 숙성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와인이 라도 매그넘이나 더블 매그넘(4병짜리)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국내에서는 구입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빈티지. 1등급 와인으로 분류되는 라투르(Latour) 자체가 투자 등급 와인인 것은 아니다. 라투르(Latour) 중에서도 1982 빈티지가 투자 등급 와인이다. 숙성력과 빈티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와인 리스트로는 라투르(Latour) 1961, 1982, 1990, 라피트 1982, 1986, 1996, 마고(Margaux) 1900, 1982, 1990 무통(Mouton) 1945, 1982, 1986 오브리옹(Haut Brion) 1961, 1989 등이 있다. 신세계 와인 중에서는 호주의 그랑지자 보르도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참고로 보르도 2005 빈티지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숙성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투자의 목적으로 와인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와인의 맛을 고려해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투자 등급 와인 중 상당수가 어릴 때는 맛이 거칠어 그 맛이 뛰어나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와인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초기 상태의 맛을 보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와인 투자시 중요한 것은 와인의 보관. 와인의 맛이 변질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와인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익을 올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 등의 생산지에서 구입해 그곳에 보관을 맡겨두었다가, 해외에서 되파는 것. 아트옥션의 조정용 대표가 조만간 이 시스템을 적용한 와인 펀드를 만들 계획이니 국내에도 본격적인 와인 투자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왼쪽 페이지 왼쪽부터 카스텔로 반피 포지오 알로로(POGGIO ALL'ORO) 이탈리아 부르넬로 지역의 최고 와인 메이커로 1999 빈티지는 2005년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8위를 차지했다. 에르미타주 라 샤펬 2000(Hermitage La Chapelle) 교회를 의미하는 라 샤펬은 풀 자블레 및 에르미타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와인이다. 샤토 무통 로칠드 2000(Château Mouton Rothschild) 1945년 이래 매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라벨에 사용하고 있으며 와인 애호가들에게 매년 새로운 이 와인의 라벨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수집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빈티지는 금세기 최고의 빈티지로 인정받는다. 에르미타주 르 파빌롱 2000(Ermitage Le Pavillon) 국내 와인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프랑스 코트 뒤 론 지역의 최고급 레드 와인. 저명한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Robert M. Parker Jr.)에게서 98점을 받았다. 마릴린 멜렛(Marilyn Merlot) 매년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생일인 6월 1일에 새로운 빈티지가 출시된다. 1985 빈티지 와인부터 1996 빈티지 와인까지 12병의 시리즈 세트는 현재 미국에서 7000달러에 거래 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왼쪽부터 몬테스 폴리 시라(Montes Folly Syrah)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라 와인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칠레 시라의 표본으로 존경받고 있는 와인이다. 클로 드 카 2000(Clos de Cart) 전 세계적으로 부르고뉴와 보졸레 지역의 최고 브랜드로서 명성을 얻는 몽메상 패밀리만의 독점 와인으로서 1142년에 포도밭이 조성된 이래, 단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어 포도의 품질을 보장받은 그랑 크뤼다.